



일제 말기와 미군정 시기에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전개한 활동을 다룬 이 책은
그 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 점에서
최근의 연구경향을 보여주는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있지만,
선교사들의 교회내 활동만을 단순히 정리하는 연구가 아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한 기독교학교의 존속문제,
태평양전쟁 시기 선교사들의 미국의 대일전 협력,
해방후 미군정과의 밀접한 관계 같은 주제를 고찰하는 점에서
이 책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종교와
국가 관계에 대한 소중한 연구서이기도 하다.

- 간행사 중에서 -

판매가 15,000원



9 788985 628679

ISBN 978-89-85628-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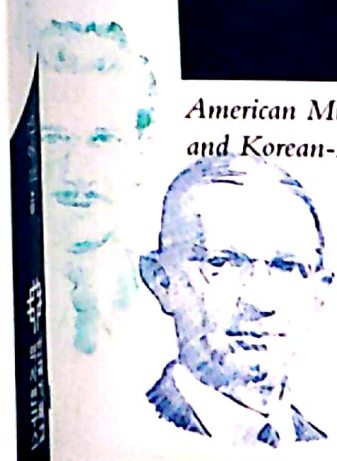
연구총서 20

미국 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

안종철 지음

American Missionaries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931-1948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